

예술의 이미지는 보이지 않은 것을 보이게 한다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거의 모든 순간의 미술사

존-폴 스토나드 지음, 윤영 옮김

인도네시아 어느 섬의 석회암 동굴 벽에는 약 5만 년 전 인류가 그린 토종돼지 그림이 있다. 동일한 시기 유럽에서는 또 다른 인류가 숲으로 질주하는 말을 간략하게 그렸다.

위는 인류가 자연에 대한 반응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낸 사례다. 이미지를 그리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본능이다. 그로 인해 초기 호모 사피엔스는 주변을 잘 이해했으며 점차 변형할 수 있었다.

미술사학인 존-폴 스토나드가 저술한 '거의 모든 순간의 미술사'는 흥미로운 책이다. 워싱턴 DC 국립미술관의 선임연구원을 역임한 그는 테이트 브리튼에서 열린 '케네스 클라크: 문명을 찾아서'를 기획했으며 '미술사를 만든 책들'을 공동 편집한 미술사 분야 전문가다.

스토나드의 책 '거의 모든 순간의 미술사'는 이미지에 초점을 맞춘다. 그동안 인간이 어떻게 이미지를 창작하고 세계와 관계를 맺어왔는지 그리고 세계를 어떻게 형성해왔는지 주목한다.



저자는 "예술의 이미지는 보이지 않은 것을 보이게 한다. 우리 몸과 생활의 보이지 않는 부분, 우리의 마음과 사회적 습관이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가정들을 말이다. 예술의 이미지는 더 나은 무엇인가, 더 큰 자유의 비전을 보여줌으로써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한다.

초기 인류가 그림을 그린 공간은 동굴이다. 매머드의 암니에서 동물의 형상을 발견하고 그것을 사자상 조각하는 등 오랫동안 동굴에 집중했다. 최초로 등장한 인간 이미지는 2만6000년 전쯤 만들어진 진 여성 신체 조각상이다.

이후 인간은 정적을 하면서 스톤헨지 같은 거석을 이용해 기념물을 세웠다. 메소포타미아를 비롯해 이집트 등 고대 문명은 당대 지배자의 이미지를 모티브로 제작했다.

인더스 문명에서는 인간을 "동물의 지배자"로 표현한 이미지를 제작했으며 고대 중국인들은 옥을 정교하게 조각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신체를 정교하게 표현한 조각상들이 만들어졌다. 파르테논 신전 같은 위대한 건축물이 당시에 건립됐다. 특히 그리스 이미지는 로마를 통해 오늘날까지 전해졌으며, 로마인들은 그리스 조각들을 토대로 새롭게 창작했다.

이미지는 더욱 더 삶과 밀접한 연관을 맺게 된



이미지는 인간이 세계와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등을 보여주는 수단이다. 페트루스 크리스티우스 '어린 소녀의 초상' (왼쪽)과 라파엘로 '원인에 대한 지식'. (까지 제공)



다. 로마에서는 다양한 인물들의 모습을 그리거나 조각하는 등 다채롭게 변이됐다.

초기 종교 미술은 '이미지 없는 이미지'를 활용했다. 인도에서 초기 종교화는 부처를 직접 그리지 않고 발자국이나, 말의 안장 등을 상징적으로 그렸다. 물론 그리스 조각의 영향을 받은 간다라 왕국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즉 부처의 조각상을 제작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교는 중국으로 전파돼 동황 석굴 같은 수많은 불화를 탄생시키기에 이르렀다.

박해의 대상이 되었던 초기 기독교들은 암호와 같은 이미지를 남겼다. 타 지역으로 교세를 확장한 이후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다. 콘스탄티노플의 아야 소피아를 비롯해 라벤나 산 비탈레 같은 화려한 성당이 세워졌다. 기독교 문화의 확산은 남으로는 아프리카 대서양, 북으로는 슬라브 지역 너머에까지, 서쪽으로는 아일랜드와 잉글랜드 해안까지 이르렀다.

사실 서양 미술의 중요한 주제는 종교였다. 베네치아 화가들이 붓으로 시적인 분위기를 표현했다

면 플랑드로 예술가들은 세밀로 대상을 그렸다. 파리에서 제작된 채색 필사본은 섬세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계란을 용매로 템페라(안료와 매체의 혼합)를 이용했다. 이후 유화 물감의 발견은 대상을 선명하면서도 다채롭게 묘사할 수 있게 했다.

19세기 중반 이후 사진의 발견은 새로운 미술로의 전환을 견인했다. 카메라는 동시에 화가들의 시선도 바꾸게 하는 촉매제가 되었다.

<까지>3만9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

최은영 지음

지난 2013년 '작가세계' 신인상을 수상하며 작품활동을 시작한 최은영 작가는 지금까지 '소코의 미소', '내게 무해한 사람', 장편 '밝은 밤' 등을 펴냈다. 허균문학작가상, 김준성문학상, 구상문학상 젊은작가상, 한국일보문학상, 대산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또한 제5회, 제8회, 제11회 젊은작가상을 수상할 만큼 자신만의 소설세계를 열어가는 주목받는 작가다.



이번에 최은영 작가가 소설집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를 펴냈다. 모두 7편이 담긴 이번 소설집은 '내게 무해한 사람' 이후 5년 만에 독자들에게 선보이는 최은영의 작품 세계다.

작품집에는 표제작 외에도 '뫼', '일 년', '답신', '파종', '이모에게', '사라지는, 사라지지 않는' 등이 수록돼 있다. 작가의 이번 소설에서 크게 작동하는 힘은 다른 사람에 대한 상상력이다.

인간관계의 특별한 감각을 드러내는 작가의 소설은 관계와 관련해 힘을 발휘한다. 이번 소설집에서는 그런 양상들이 사회적 문제와의 관계 속에서 세세하게 드러난다.

평론가 양경언은 해설에서 "최은영의 작품은 언제나 미묘한 파동이 만들어낸 원인으로 여러 사회 조건 및 역사적,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짚어왔"고 "현실의 문제를 다루는 일에 '여전한 용감'('더 가보고 싶어',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을 갖고 있다고 본다.

한편 권여선 소설가는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는 희미한 빛을 찾아 어두운 허공을 오래 천천히 응시한 자의 고요와 열기를, 마치 한 자루의 초에 불을 붙이고 그것이 타오르는 것을 지켜보는 행위와 같은 경건함으로 그려낸다. 이런 문장은 당해낼 길이 없다"고 평한다.

<문학동네·1만6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조선이 만난 아인슈타인

민태기 지음

아인슈타인, 하이젠베르크, 슈뢰딩거...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현대물리학의 대가들. 그들이 세계 과학계를 뒤흔들며 인류 지식의 판을 새롭게 짜던 때 우리 과학자들도 폭넓은 국제적 행보를 보이며 당대와 흐름을 같이 했다는 사실을 아는 이가 얼마나 될까.



기계공학자 민태기 박사가 쓴 '조선이 만난 아인슈타인'은 100년 전 우리 조상들의 과학 탐사기로, 시대의 아픔과 비극을 과학으로 극복하려 했던 이들의 이야기다. 전작 '판타 레이'에서 서양 과학사 속 유체역학을 흥미롭게 풀어낸 저자는 과학과 예술, 문화가 어우러지며 역동적으로 꿈틀대던 조선을 남다른 시각으로 보여준다.

20세기 초,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공간을 지나던 때는 현대물리학이 등장하며 과학자들이 치열한 논쟁을 벌이던 시점이었다. 막스 플랑크가 양자역학의 문을 열었고 쿨리가 방사능을 발견했으며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으로 물리학에 변화를 가져왔다.

과학의 혁명이 이뤄지던 이 시기에 조선의 지식인들도 과연 양자역학을 공부했을까? 저자는 1920년,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기 전부터 조선에서는 이미 상대성이론이 화제가 됐고 대중을 위한 해설 강연이 신문에 연재됐었다는 사실을 전한다.

"우리는 그 시대를 잊고 있다. 100년 전 이미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이 조선을 휩쓸고 지나갔음에도 마치 우리 선조들이 서양 과학 흐름에 무지했다는 인식에 사로잡혀 있다. 이 책은 잘 알려지지 않은, 시대의 비극으로 역사 속에 묻혀버린, 그러나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기록이다. 새로운 미래는 기억하고 기록할 때 비로소 만들어진다."

<위즈덤 하우스·1만85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희귀종 눈물귀신버섯

한연희 지음

"잠 속에서 또 잠을 자게 되면/ 악령 하나가 나를 것이고/ 그에게 질문을 던지면 답을 들을 수 있다"('아무나 악령' 중에서) 몽중몽 악령에게 답을 구할 만큼 '절박'하다. 유령 이야기들은 한 권 시집에 모여 '기대'가 됐지만 그보다 무서운 건 혼란한 세계. 그 속에서 시인의 의연함은 온갖 불안과 고통과 희망의 전언처럼 날아든다.



2016년 참비신인문학상을 통해 등단한 한연희 시인이 '희귀종 눈물귀신버섯'을 문학동네시인선 199번으로 펴냈다. 첫 시집 '폭설이었다 그다음은(아침달)' 이후 3년 만의 작업물.

제목에 언급한 '눈물귀신버섯'이 먼저 호기심을 자아낸다. '눈물버섯'이나 '그물귀신버섯'은 실존하나 눈물귀신버섯은 사전에도 없다. 게다가 버섯은 동물도 식물도 아닌 경계의 존재이기에, 핵심 소재부터 이편과 저편 사이를 방황하는 유령화된 존재를 상상하게 한다. 다만 실제만큼은 강렬한데 '요괴'가 '버섯'을 꼭 찍어 누른다('배꼽 속 요괴' 중에서)거나 '원혼'이 '수면 위로 머리를 내민'('계곡 속 원혼' 중에서) 모습 등은 무자비한 세계에 대한 은유로 읽힌다.

"춤.춤.춤// 누구를 기다리는 일은/ 기대를 자꾸 거는 일은/ 끝나지 않고/ 더 어깨를 구부러뜨리게 되고"('밀주' 중에서)

위 시는 술을 달이는 과정과 무언가를 기대하는 일을 겹쳐보게 만든다. 시적 화자가 바라던 이는 결국 목적지에 당도했을까? 안전한 세계를 몽상하던 시인의 기다림과 그 끝은 기약 없다. 아마도 시에 담긴 '기대를 건다'는 말의 진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온몸을 내걸리는 갈고리를 인내해야 한다는 의미일지도. 그런 사인을 가진 유령이라면 가까이 될 수 있고, 세계의 공포도 더는 두렵지 않다.

<문학동네·1만2천원>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